

역사-비교언어학의 연구방법과 공통조어의 재구에 관한 연구

김 윤 한
(언어학과 교수)

0. 서 론

르네상스 이후 신학으로부터 해방되어 모든 학문적인 명제는 신학적 존재론 대신에 이성적인 추론에 의해서 유도되었다. 17, 18세기의 언어학자들 역시 Aristoteles나 Platon 시대와 같이 언어의 역사적 변화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예컨대 언어적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전단계의 언어상태를 구체적으로 연구하지 않고 관념에 의거하여 선형적으로 고찰했다. 특히 Port-Royal 문법학과와 Condillac의 문법이론과 같이 문법은 형식논리학의 일부인이었으며 Humboldt는 일반언어이론을 정립했다.

18세기부터 독일에서는 어휘집중서 간행, 텍스트비판을 토대로 한 문헌출간 등 언어자료 축적과 문헌학의 발전으로 비교언어학의 기틀이 이미 마련되었다. 또 한편으로 유럽인들은 지리적 발견과 식민정책을 통해서 유럽지역 외의 언어와 문화에 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18세기 말기에는 인도와의 접촉을 통해 산스크리트와 접하게 됨으로써 인구어족을 가장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이 비교언어학 정립의 직접적 요인은 되지 못했으나 문헌학이 새로 발견된 인구어 개별어를 확고한 지식의 토대 위에서 고전어와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비교언어학자들에게 제공해주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직관보다는 구체적인 언어자료를 토대로 인구어족에 관한 연구가 Jones(1786)에 의해서 시도되었고 Schlegel은 언어비교 방법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했으며 그의 *Über die Sprache und Weisheit der Indier*(1808)의 출판과 더불어 산스크리트에 대한 관심이 절정에 이르렀다. 비교언어학은 낭만주의적 배경의 토대 위에서 급진적으로 발전했고 Bopp(1816)가 동사형태 구조를 체계적으로 비교한 후부터 그 과학적인 연구방법이 확립되었고 그 결과 객관성을 지닌 학문으로서 한층 더 확고한 바탕 위에서 발전하게 되었다.

독일에서 비교언어학이 발전한 이유는 그 당시 비교언어학의 발전에 필요한 여건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잘 조성되었다는 데 있다. 학문의 발전은 사회 및 지적 발전과정으로 이해되는데 이에 필요한 전제조건으로서 연구과제 선택의 필요성과 선택된 과제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의 지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해서는 개인보다는 사회적 조직 즉 대학이나 연구소에서의 체계적인 연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 당시 독일인들은 자국어의 역사에 관한 관심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많았으며 Grimm은 게르만어학(역사언어학)을 정립했다. 19세기 독일대학은 질과 양적으로 급성장을 했으며 149 개의 인문학과가 설립되었다. 그중 20 개의 비교언어학과가 있었으며 62종의 어학 전문지가 발행되었다.

새로운 이론에 대한 호기심과 비교언어학과 외에도 문헌학과와 개별어문학과에 비교언어학의 이론이 소개되어 새로운 학문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고조되었다. 그 결과 많은 비교언어학자들이 배출되었으며 그들이 신설되는 대학에서 어학강의를 담당할 수 있었다. 풍부한 인적자원, 다량의 전문지를 통한 정보교환의 활성화 등 독일대학내에 비교언어학의 발전을 위한 훌륭한 연구풍토가 조성되었다.

역사-비교언어학은 Bopp(1816)에서 비롯되어 Schleicher(1861)에 의하여 체계화되었고 젊은이문법학파 시대에 그 절정을 이루었다. 역사-비교언어학의 주요 연구대상으로 음성학과 형태론 등 언어의 형식적인 면이 부상되었는데 그 이유는 자연과학적인 방법론의 수용으로 언어의 형식적인 면을 비교의 대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비교언어학의 주요과제는 비교의 토대가 되는 제3의 기준을 통하여 둘 또는 다수의 언어를 체계적으로 비교하는 작업인데 그 목적은 언어의 모든 체계를 비교하여 기술하는 데 있지만 실제로는 부분적인 영역만을 비교하게 된다.

역사-비교언어학은 언어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전제로 하는데 인구어 개별어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의 정도는 역사-비교언어학의 최적의 조건을 제시한다. 비교언어학(비교문법)이라는 용어는 언어체계를 비교한다는 관점에서 Schlegel(1808)이 처음으로 사용했다. 역사-비교언어학은 고도의 개연성을 지닌 가설로서 비교를 통해서 가상의 공통조어를 재구한 다음 다시 재구된 공통조어에서 서로 다른 개별어가 어떻게 분기되고 발전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역사-비교언어학의 이중적인 목표의 설정은 Platon의 이데아(국가편, 504 d)와 유사성이 있다.

인구어 역사-비교언어학자들은 꾸준한 연구를 통해서 잊혀진 것으로 여겨졌던 인류의 귀중한 유산을 다시 찾았다. 고고학자들이 삽과 곡괭이로 문화유적을 발굴해내듯이 역사-비교언어학자들은 단편적인 문헌을 토대로 하여 오천여 년 전 인구어 공통조어 시대의 어형을 재구했다.

언어는 간접적으로는 인류문화 전승의 매개체이며 직접적으로는 인간 의사표현의 도구이다. 그러므로 언어학은 다른 어떤 학문보다도 더 많이 그 시대에 유행하는 지적인 풍조를 반영한다. Cuvier(1817)의 비교해부학이론은 그 당시 언어학자들의 언어구조에 관한 연구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Lyell(1830)의 지질학원론은 증거자료 불충분으로 증명할 수 없는 전단계의 언어변화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설명하는 방법

론적 원칙을 언어학자들에게 제공했다. Schleicher는 Darwin의 진화론과 식물학의 영향을 받아 언어분기에 관한 수형계통설을 주창했다.

비교언어학의 가장 큰 특징은 언어를 정적인 체계로 취급하는 구조주의언어학과는 대조적으로 언어를 역사적 창조물로 보는 데에 있다. 그 결과 언어의 동적인 면 즉 언어변화에 관한 연구가 강조되었고 언어를 경험적이며 구체적인 맥락에서 고찰하게 되었다.

역사-비교언어학자들이 언어의 친족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적용한 비교방법은 거의 완벽하고 신빙성이 높다. 역사-비교언어학의 중심과제는 공통조어의 재구와 언어변화(음운법칙)관 연구 및 기술인데 필자는 언어의 통시적 연구가 철저하게 행해지지 않는 한 완벽한 공시적 연구는 기대할 수 없다고 본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세기는 실증주의 사조 즉 물리학의 절대적인 법칙과 자연의 기계적인 동일성에 관한 절대적인 관념이 풍미했는데 음운법칙에 예외가 없다는 젊은이문법학파의 언어이론의 근본원리는 이러한 시대적 사조에서 비롯되었다.

본 논문의 집필목적은 1) 역사-비교언어학의 정립과 발전과정을 약술하고, 2) 그 연구방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에 친족관계를 확정하고, 3) 공통조어를 재구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 필자는 특히 언어학을 정밀과학으로서 정립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과학적인 연구방법, 즉 비교방법의 발전과정을 분석하고 기술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1. 역사-비교언어학의 정립과 발전단계

19세기 언어연구 방법의 특징은 역사적 연구방법, 자연과학의 범주와 방법론의 수용, 진화로서의 언어변화의 목적론적 의의로 요약된다. 역사-비교언어학은 현상에 관한 관찰, 연구와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과학의 연구방법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 당시 Herder나 Goethe에 의한 낭만주의의 팽배로 민족의 뿌리를 찾으려는 운동의 일환으로서 공통조어의 재구와 자기 민족의 역사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민족국가 및 문화의 형성과 발전과정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인간 정신활동의 발전이 언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으므로 가장 오래된 문헌과 언어단계에 관한 연구가 중시되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후에는 종교적, 역사철학적, 민족적 동기에서 유발된 관심의 바탕 위에서 언어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항이 연구대상으로 대두되었다.

인구어의 가장 오래된 언어단계에 관한 연구가 역사-비교언어학의 중심과제로 부상되었으며 그 결과 친족관계의 규명, 공통조어의 재구, 언어변화 현상과 조음기관의 역할, 언어발전의 실제, 언어변화와 다른 영역에서의 변화와의 비교, 언어연구 방법론에 관한 고찰 등 일련의 일반적인 문제가 언어연구의 핵심과제로 대두되었다.

역사-비교언어학의 연구방법론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철학적 사조는

물론이지만 역사-비교언어학의 발전과정의 전체적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 역사-비교언어학은 다음과 같은 3 단계의 발전을 거쳐 완성되었고 1916년 Saussure의 구조주의 언어학이 정립될 때까지 100년 동안 세계 언어학의 주류를 이루었다.

1) 초기단계: Bopp, Rask, Grimm 등에 의해서 대표되며 낭만주의 철학과 부분적으로는 Humboldt의 언어철학에 토대를 둔다. Bopp는 *Über das Conjugationssystem der Sanskritsprache in der Vergleichung mit jenem der griechischen, lateinischen, persischen und germanischen Sprache*(1816)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역사-비교언어학의 이론을 정립했다.¹⁾

그는 동사의 형태분석만으로 친족관계를 입증했는데 그에 의하면 형태상으로 유사한 어휘가 동일한 어족에 속하는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음운상의 유사성만으로는 불충분하며 형태구조적 일치 즉 본질적인 동일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언어비교는 그에게는 수단에 불과했고 그의 주목적은 가장 오래되고 변화되지 않은 단순한 언어의 원시상태의 형태를 설명하고 인간정신의 본질을 규명하여 인간의 사고법칙을 창출하는 데 있었다. 그는 언어를 유기체적인 관점에서는 물론 물리적 측면에서 고찰함으로써 언어의 유기적인 체계를 기술하고 물리적, 기계적인 언어법칙을 발견하려고 시도했다(Bopp 1833, 52). 그는 친족관계가 확정된 언어의 비교를 통해서 문법형태를 직접 설명할 수 있거나 분석할 수 있는 언어의 원시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견해는 착오였으며 그의 후계자들은 언어의 역사적 발전과정만을 고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그는 추상적인 일반이론보다는 구체적인 언어자료를 통해서 거의 모든 언어를 연구했다. 그는 비슷한 어휘의 비교에 의거하지 않고 Schlegel이나 Humboldt가 시도한 바와 같이 언어구조 특히 동사체계의 비교를 통하여 언어의 친족관계를 입증했다.

그의 교착설에 의하면 명사나 동사의 모든 인칭어미는 동사어근으로 환원되는 완전한 뜻을 가진 독자적인 단어와 원래 대명사였던 조사와의 결합결과 즉 모든 인칭어미는 1, 2와 3인칭 대명사에서 유래되었다. 예컨대 Bopp가 적용한 어느 한 언어의 형태는 다수의 다른 언어의 형태를 통해서 설명되고 고찰될 수 있다는 새로운 방법은 역사-비교언어학 연구방법의 토대가 되었다.

Bopp의 형태구조의 비교방법은 친족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언어들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15년 Hrozný에 의해서 처음으로 발견된 히타이트어와 희랍어, 인도어, 라틴어 사이에서 단 하나의 음운대응 관계도 발견할 수 없었지만 Hrozný는 형태구조상의 일치를 바탕으로 하여 이 언어들간의 친족관계를 입증했다. 한편

1) Meillet는 Columbus가 인도에 가는 항로를 찾으려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듯이 Bopp는 언어를 설명하려고 시도하다가 비교언어학을 정립했다고 했다(Meillet-Printz 1909, 276).

Bopp의 저서 어느 곳에도 그 당시의 독일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Indogermanisch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 새로 발견된 어족을 Indoeuropäisch라고 단 한 번 칭했는데 이 명칭이 독일을 제외한 유럽에 널리 통용되었다.

2) 확립단계: 역사-비교언어학은 19세기 중엽 Schleicher에 의해서 절정을 이루며 자연주의 철학을 근간으로 하는 언어이론이 정립되었다. 그는 자연과학자로서 확정된 사실을 체계화하고 일반적인 법칙을 유도해 내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다. 그는 언어의 2 단계 발전설을 주창했다. 그에 의하면 언어는 유기체로서 그 자체의 내적 체계를 가지며 언어의 자발적 운동의 근본요인은 언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언어정신이고 이러한 언어정신이 언어체계의 유형변화를 일으킨다.²⁾

Compendium der vergleichenden Grammatik der indogermanischen Sprachen(1861)의 출판과 더불어 언어의 비교연구는 절정을 이루었다. Schleicher는 Hegel학파에 속하지만 그의 언어이론은 생물학 특히 식물학의 영향을 받았으며 Darwin의 진화론은 그의 언어사 전개 및 생물학적 언어연구 모델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그의 진화론적 언어관은 언어 변화에는 예외가 없다는 원칙을 근간으로 한다. 그의 언어이론은 역사-비교언어학의 제1단계의 종식을 의미하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언어는 생물학적 실체로서 그 변화는 자연적인 진화이다.

(2) 언어학자의 임무는 비교할 수 있는 언어요소 사이에 정확히 일치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또 이것을 기초로 하여 인구어 공통조어를 재구하는 데 있다.

(3) 고대 언어단계에 관한 고찰이 현대 언어단계의 연구보다 더 중요하다.

(4) 언어의 의미보다는 형태에 관한 연구가 더 중요하다.

비교언어학이 발전함에 따라 그 방법론도 향상되어 외형상으로 불규칙적인 언어변화도 어떤 다른 음운법칙이 적용되었을 때 규칙적인 변화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Schleicher는 물론 Bopp, Pott, Curtius, Kuhn, Benfey 등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수용했다. Schleicher와 초기 역사-비교언어학자인 Bopp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드러난다. 즉 Bopp는 인구어족의 친족관계를 입증하고 그 결과 우선적으로 인구어의 공통적인 특색을 강조했지만 Schleicher 시대에는 인구어학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은 이미 상식이 되었다. Schleicher의 특징은 인구어 음운변화에 주력했다는 데 있다. 특히 그의 수형계통설은 역사-비교언어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현대 역사-비교언어학에서 다시 거론되고 있다. 또 한편 그는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식축적도 중요하지만 체계화작업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다.

2) Schleicher는 언어의 2 단계설을 주창했는데 전단계에서는 언어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유추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나 후단계에서는 언어정신의 결여로 유추에 의한 언어변화가 일어났다고 했다.

Schleicher가 처음으로 시도한 공통조어의 재구는 언어가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변화한다는 사실을 토대로 한다. 언어변화의 원인이 규명되고 수형계통설을 통해서 친족관계가 명확해지고 한걸음 더 나아가 언어변화에 관한 세부적인 지식과 재구방법이 확증되자 그는 짧은 우화를 공통조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3) 젊은이문법학과 시대: 이 시기에 이르러 낭만주의적 언어이론의 취약점을 극복하고 극단의 자연주의적 언어이론에 대한 비판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전세대에서 수집된 언어자료에 관한 새로운 엄격한 분석방법이 필연적으로 요구되었다. 젊은이문법학자들은 언어학의 기본원칙과 목적을 구체화하고 그에 상응하여 연구방법을 수정, 보완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낭만주의자들은 역사-비교언어학을 인구에 민족문화의 재구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했다. 예컨대 그들에 의하면 언어학의 과제는 언어자료를 공통조어의 재구와 정신사의 기술에 적용하는 데 있고 언어는 정신적 창조의 작품이다. 따라서 그들은 언어변화의 요인을 언어외적인 정신생활과 문화적 측면에서 찾았다.

Schleicher와 그의 신봉자들은 언어를 자연적 유기체로 취급하고 언어에 내재되어 있는 언어정신을 언어변화의 원인으로 보았다. 그들에 의하면 이러한 언어정신은 언어체계의 유형적 변화에 나타난다. 그러나 그 당시 역사언어학자들은 언어의 유형적 변화를 역사적으로 확증할 수는 없었다. 이와 반대로 젊은이문법학자들은 언어변화의 원인을 언어내적 요인에서 찾았다. 그들은 언어체계 그 자체와 기능이 언어를 변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이론은 Schleicher의 유기체이론과 유사하다. 그러나 그들은 Schleicher의 이론과는 반대로 언어비교에서 얻어진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언어변화에 관한 이론을 정립했다. 또한 그들은 언어의 2 단계 발전설을 부인했다.

젊은이문법학자들은 언어연구의 분석적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언어학을 정밀과학으로 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들의 언어연구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은유적이고 제어할 수 없는 학술용어를 배제하고 언어의 자율적인 존재를 부정했다.

(2) 언어재구보다는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언어에 관한 연구에 중점을 두었고 문자보다는 음성에 관한 연구에 우위성을 두었다.

(3) 언어학을 역사과학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언어의 동적인 면 즉 언어변화에 관한 고찰에 주력했다.

젊은이문법학자들이 음운법칙을 가장 중시하는 이유는 그 당시 흥미했던 학문적 가치는 현존하는 자료를 토대로 경험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명제에만 주어져야 한다는 실증주의 철학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들은 통시적 음운변화는 또 다른 변화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음운법칙을 음운상호간 영향의 결과로 간주했으며 음운변화의 예외현상을 상이한 음운법칙의 작용결과로 보았다. 그들은 음운법칙을 통해서 언어연구의 형식화와 연역적 방법론을 언어연구에 도입했다. 음운법칙의 발견과 더불어 언어학은 법칙과학으로서의 전제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음운법칙에는 예외가 없다는 언어연구의 기본원칙이 확정된 후부터 역사-비교언어학은 큰 발전을 보게 되는데 이 법칙은 1) 음운법칙의 예외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심리학의 개념인 유추작용을 도입했고,³⁾ 2) 언어변화에 예외가 없다는 원칙, 유추작용, 방언과 차용에 관한 고찰, 인구어 모음체계에 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모든 개별어의 비교문법이나 그 당시 일반적으로 인정되었던 많은 언어사실을 수정, 보완했다는 두 관점에서 역사-비교언어학의 발전에 기여했다.

젊은이문법학파의 언어연구 방법은 Bopp, Schleicher 등 전세대 역사-비교언어학자의 것과 근본적으로 크게 다른 것은 아니다. 그들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젊은이문법학자들이 음운법칙을 자연법칙과 같이 기계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할 경우 그것과 상보적 관계에 있는 심리적인 유추작용을 적용해서 언어변화를 설명한다는 데 있다.

그 당시까지 축적된 역사-비교언어학에 관한 모든 이론과 다량의 자료는 Brugmann과 Delbrück의 *Grundriss der vergleichenden Grammatik der indogermanischen Sprachen* (1897-1916)의 5권의 방대한 저서에 수록되어 있다.⁴⁾ 이 시기에 Paul은 최초의 언어학의 이론서인 *Prizipien der Sprachgeschichte*(1880)를 출판했는데 여기에는 이미 역사-비교 언어학의 자아극복과 구조주의 이론이 내포되어 있다.

2. 역사-비교언어학에서 비교방법의 원칙

언어의 제현상을 과학적으로 고찰하고 체계화하며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개개의 경험을 통일된 원리에 따라 체계화하는 언어이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언어학의 연구대상, 연구방향, 연구방법을 결정함으로써 언어학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법론은 복잡한 언어현상에 대한 체계적 지식을 얻기 위한 방법이며, 언어학의 급속한 발전의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

역사-비교언어학의 목적은 항상 진화하는 대상을 인식하는 데 있다는 당시의 역사주의 이론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역사-비교언어학 연구방법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역사적

3) 젊은이문법학자들이 언어변화의 심리적 요인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들을 유추론자라 부르기도 한다.

4) 이 책에는 인구어 분야에서 그 당시까지 축적된 모든 지식이 수록되어 있다. 그들은 많은 것 중에서 취사선택한 언어이론을 물론 수정, 보완하여 체계적으로 편집했기 때문에 이 책은 이 분야의 필독서가 되었다.

연구방법 즉 언어의 통시적 연구방법이다. Schleicher가 어느 사물에 관해서 그 진화의 역사를 모르면 그것에 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것과 같다고 했고, Paul이 역사언어학 외에 또 다른 과학적인 언어고찰 방법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 사실만 보아도 그 당시 역사주의의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역사-비교언어학자들은 문헌에서 서로 다른 언어 사이에 비슷한 형태를 찾아 비교하여 귀납적으로 언어변화의 규칙성을 유도한 다음 공통조어의 재구를 가능하게 하는 음운법칙을 공식화하였고 또한 언어간의 친족관계의 정도를 규명했다.

비교와 역사는 서로 다른 개체들의 종합을 전제로 하며 언어자료의 비교는 비교만을 위한 비교가 아니었고 사실에 대한 설명과 보편화를 위한 것으로 유형학의 근본이 되는 방법이었다. 이러한 비교의 기준은 보편문법을 토대로 해서 작성된 이상화된 의미장의 불변형과 변이형의 목록이다. 이 목록을 근거로 해서 변이형의 유사성 정도에 따라서 언어를 분류한다.⁵⁾ 물론 언어간의 의미나 음운상의 절대적 대응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관계는 체계적으로 연관된 유사성을 바탕으로 해서 확정된다.

이러한 유사성은 해당언어의 어휘, 의미, 문법 등의 체계비교를 통해서 확정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음성적인 면의 대응관계를 가정한 후에 의미쪽의 대응관계를 해명하거나 그 반대다. 예를 들면 친족관계가 불분명한 두 언어의 음성적인 면, 즉 표현체계만이 알려져 있을 때 이들 음성적으로 유사한 어휘간의 의미면에서의 대응관계를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확정할 수 있다(Amirova et al. 1975, übersetzt von Meier 1980. 266f.):

1) 두 음성형태의 의미가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적인 의미로 소급될 때 이 두 형태는 의미면에서 서로 대응관계가 성립된다.

2) 음성적으로 유사한 두 형태의 의미는 상이하지만 그와 유사한 두 언어의 어형들이 한 언어형태의 의미가 비교의 대상인 다른 언어의 형태의 의미와 동일함이 입증된다면 이러한 어형들은 서로 대응관계에 있다고 본다.

3) 음성적으로 유사한 두 형태의 의미가 서로 다르지만 그와 유사한 두 언어의 어형들이 서로 다른 의미가 이러한 다른 유사한 어형들과 동일한 의미에서 생성되었음이 입증된다면 이러한 어형들은 서로 대응관계가 있다고 간주된다.

언어형태의 비교를 통해서 의미의 대응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작업이 바로 어원론⁶⁾이며 이것은 대응관계에 있는 언어형태를 총괄하는 기준이 되는 의미체계로 성립된다. Pott의 *Etymologische Forschungen auf dem Gebiete der indogermanischen Sprachen*

5) 보편문법은 언어비교에 필요한 실제적 자료를 제공한다. 예컨대 보편문법이 제공하는 의미목록(내용)을 토대로 해서 개별어간의 변이형을 비교하여 친족관계를 규명한다.

6) 어원론은 의미장내에서의 체계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요소의 총체에 기초하며 둘 또는 그 이상 언어체계의 비교를 통해서 이 요소들간의 의미관계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비교된

(1883-36)에서 체계화된 어원론은 의미형성과 의미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어원론에 바탕을 둔 연구결과는 보편문법에 의한 것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

1) 어원론에서의 의미체계 비교를 통해서 해당언어간의 형태상의 연관성이 제시되지만 보편문법은 그러한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2) 어원론의 연구대상이 되는 언어단위 즉 어휘는 문헌에 기록된 언어체계에서 선정되는 데 반해서 보편문법은 이러한 단위를 실존하는 언어체계가 아니고 이상화된 의미나 개념의 체계에서 선택한다.

어원론을 통해서 체계의 비교가 가능해졌으며 또 한편 상이한 언어간의 의미론적 연관 관계를 개관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어원론 연구방법의 특성 때문에 다음과 같이 상이한 두 고찰방법이 가능하다(ibid. 268-276 참조):

1) 언어간의 유사성 정도는 당해언어의 내적 변화의 특성과 물질적 요소의 변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문화적 공통성의 정도나 영토의 접근거리 등에 따라서 확정된다. 따라서 유사성 정도의 차이는 영향을 주는 요인의 양적인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언어연합이나 언어체계간의 간섭현상 등이 이 경우에 속한다. 이러한 양적인 요인과 어원적으로 관련되는 언어요소의 특성은 일련의 특정언어내에서 간섭현상의 관계와 그 특성에 관한 중요성의 순위를 확정하는 데 필수적인 요인이다.

2) 당해언어의 물질적 요소의 내적 변화의 특성이 증시되는데 이 경우에는 실제적인 친족성에 관한 탐구가 주목적이 된다. 이러한 실제적인 친족성은 친족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문화공동체를 확정하는 데 기본요인이 된다.⁷⁾ 실제적인 친족성의 유사성은 당해언어간의 계보적 분류와 공통조어의 재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차용된 어휘를 제외한 본래의 순수한 어휘만의 비교에 의해서 결정된다.

또 한편 실제적인 친족성의 정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상호간 귀납적 관계에 있는 1) 비교될 언어체계간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차용되지 않은 본래의 어휘형태소 및 문법형태소 목록의 대응관계를 확립하고, 2) 비교될 언어간의 문법체계의 대응관계를 연구하고, 3) 비교될 언어에 나타나는 음운법칙에 관해서 고찰한다는 등의 방법이 적용한다.

공통조어를 재구한다는 것은 친족관계에 있는 여러 언어가 파생된 어떤 특징의 언어체계(또는 그 일부분)의 이론적 기술을 뜻하는데 이러한 공통조어는 다음에 열거한 어휘론, 형태론, 문법론과 음운론 등 여러 하위체계의 비교를 통해서 재구된다:

상이한 체계에 속하는 요소들간의 의미상의 연관관계를 확정할 수 있다.

7) 이 경우 양적인 대응관계는 친족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증시되지 않는다.

어휘론: 차용어를 배제한 후 유사한 언어의 서로 대응하는 문화적 발전단계에서 전형적인 단어를 포함하는 어휘의 의미장을 확정한다. 이 경우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어휘는 1) 친족관계를 표시하는 용어, 2) 신체의 부분을 지칭하는 어휘, 3) 신의 명칭, 4) 지방의 개념이나 자연현상을 표현하는 어휘, 5) 가축이나 들짐승 등의 명칭, 6) 식물의 명칭, 7) 가구나 건물 등의 명칭 등이다. 이 외에도 대상과 현상의 특성을 나타내는 특수한 동사나 형용사 등이 있는데 관능적인 지각, 운동과 행동을 표현하는 동사나 단순한 특성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기본어휘에 속한다.⁸⁾ 여러 상이한 언어의 어휘의 의미장을 연대순으로 비교하면 언어분기의 특성을 개괄하고 그 언어들간의 친족관계의 정도를 추정할 수 있다.⁹⁾

형태론: 위에서 언급된 공통조어의 재구에 관한 가설은 비교대상이 될 공통어휘(동계어)뿐만 아니라 형태소의 유사성에 관한 영역까지 확대되어 한층 더 신빙성을 얻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 당해언어의 친족관계 정도는 공통적인 형태집합의 공통어휘 집합에 대한 비례관계로 확정된다. 예컨대 계통론상의 관점에서 공통적인 형태소의 수가 공통어휘의 수에 비례해서 많으면 친족관계 정도는 멀어지고 이와 반대로 공통어휘의 수가 공통적인 형태소의 수에 비례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친족관계 정도가 커진다. 언어분기 시기의 확정과 공통조어 체계의 재구는 문법형태소와 어근형태소 체계를 취급함으로써 한층 더 구체화된다.

다음과 같은 4개의 체계가 있다고 가정하자(ibid. 270):

A	B	C	D
\sqrt{a}	\sqrt{a}	\sqrt{c}	\sqrt{c}
\sqrt{b}	\sqrt{b}	\sqrt{d}	\sqrt{d}
\sqrt{e}	\sqrt{f}	\sqrt{f}	\sqrt{e}
$\sqrt{1}$	$\sqrt{2}$	$\sqrt{3}$	$\sqrt{4}$

이 경우에 체계 AB와 CD는 공통어근, 다시 말해서 AB는 \sqrt{a} 와 \sqrt{b} , CD는 \sqrt{c} 와 \sqrt{d} 를 공유한다. 공통어근은 위에서 언급한 체계의 평균집합을 나타낸다(예컨대 $A \cap B = \{\sqrt{a}, \sqrt{b}\}$, $\cap AD = \sqrt{e}$ 등). 또 한편 모든 집합, 모든 체계는 $\sqrt{1} \in A$ 등과 같이 다른 집합에 함유되지 않은 특수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분배를 다음과 같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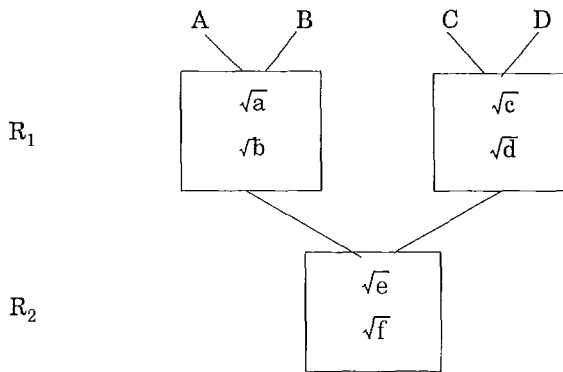
8) 어떤 관계를 나타내거나 복합적으로 구성된 형용사나 행위의 미세한 차이를 표현하는 동사는 발전된 문명단계에 형성된 어휘다.

9) 친족관계를 지칭하는 용어, 신체부위의 명칭, 신의 명칭이나 지명 등은 수를 표시하는 낱말보다 먼저 그리고 수사는 곡물이나 가구의 명칭보다 훨씬 이전에 형성되었다.

식화할 수 있다.

\	a	b	c	d	e	f	1	2	3	4
A	+	+	-	-	+	-	+	-	-	-
B	+	+	-	-	-	+	-	+	-	-
C	-	-	+	+	-	+	-	-	+	-
D	-	-	+	+	+	-	-	-	-	+

위의 행렬에서 체계 A는 B와 체계 C는 D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상응하여 그것들은 두 개의 재구형으로 분류된다. 그 반면에 체계 BC와 마찬가지로 체계 AD는 어근형태소의 수가 작기 때문에 연대적으로 한층 더 큰 차이가 난다. 따라서 위에 열거한 네 체계는 두 단계로 재구되는데 이 경우에 어근형태소 \sqrt{e} 와 \sqrt{f} 는 네 체계의 원형을 나타낸다. 위의 사실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ibid. 271):¹⁰⁾



언어의 분기시점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Swadesh(1948)의 연대언어학과 Schrader (1883)의 어문화사적 방법이 적용된다. 전자의 이론적 근거는 언어변화율이요 후자는 어휘가 존재하면 반드시 그 어휘가 표상하는 사물이 존재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한다.

영어와 독일어 기본어휘 다섯 개를 비교하면 (animal, four, head, I, sun-Tier, vier, Kopf, ich, Sonne) 동계어휘의 보존율은 60%이다.¹¹⁾ 따라서 그 분기연도는 1561년 전, 약 A.D.

10) 이 도식은 역사-비교언어학적 분석방법을 나타내는데 실제의 연구에서는 몇십 개의 언어에서 수백 개의 어근형태소를 분석해야 한다. 이와 같이 친족관계의 정도를 규명하는 방법은 집합 이론에 의한 것이다.

11) 소수의 동계어휘 비교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오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차의 범위를 줄이기 위

450년경이다.

$$t = \frac{\log C}{2 \log r} = \frac{\log 60\%}{2 \log 85\%} = \frac{0511}{2 \times 0.163} = 1561$$

어문화사적 방법론의 태두리 안에서 금속명칭에 관해서 고찰을 해보면 비교적 통일된 인구어 공통조어가 언제까지 사용되었는가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 대다수의 개별어는 동일한 어근에서 파생된 금(**gher-*)과 은(**arg-*)이라는 두 귀금속의 명칭을 가지고 있다. 두 귀금속의 명칭이 대부분의 인구어 개별어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구어 공통조어 시대에 이미 그들이 두 귀금속을 알고 있었음을 뜻한다. 그 반면에 귀금속이 아닌 구리, 청동, 철 등의 명칭은 모든 개별어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다. 위의 두 사실을 비교해 보면 인구어 민족이 공통조어를 사용했던 시대는 실제로 금속기 시대 이전이었음이 분명하다. 다시 말하면 인구어 공통조어는 늦어도 B.C 2000년경 금속기 시대 오기 전에 이미 개별어로 분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김윤한 1988, 131f.).

문법론: 문법형태소는 모든 언어에서 하나의 완성된 목록으로 존재한다. 언어분기의 시기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인 문법형태소뿐만 아니라 문법범주의 목록과 체계에 관한 고찰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문법범주는 어미변화 체계(곡용과 활용)와 조어법으로 세분된다.¹²⁾ 어미변화 체계는 당해언어에서 하나의 완전한 체계로서 나타나는데 어떤 언어의 곡용과 활용체계중 어느 것이 존재하는가는 친족관계의 정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예를 들면 곡용체계가 라틴어, 러시아어, 산스크리트에는 존재하는데 프랑스어에는 없다). 다시 말해서 이 중 어느 범주의 존재여부는 일정한 연대순으로 당해언어의 배열을 가능하게 한다.¹³⁾ 이로써 순수한 문법체계만을 바탕으로 당해언어를 연대순으로 배열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제시되었다. 따라서 어휘적 가설과 문법적 가설은 상호간의 비교를 통해서 결함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한층 더 확증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 물론 문법형태소간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문법적 가설 그 자체만으로도 정확도를 높이고 그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특히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Amirova et al., 1975, übersetzt

위해서 정선된 다수의 기본어휘를 비교하여야 한다.

12) 언어의 친족관계를 추정하는 데는 대체로 개별어의 조어방법은 산만하고 불명료하기 때문에 완전한 체계로서 존재여부가 분명한 어미변화 체계의 비교가 중요시된다. 또한 조어법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어근비교의 방법과 유사하다.

13) 어휘론의 경우 특정어휘의 존재여부가 의미장의 연대순 배열을 가능하게 하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다.

von meier 1980. 272):

- 1) 어미변화 체계가 의미목록뿐만 아니라 형태소목록과 일치할 경우.
- 2) 어미변화 체계가 형태소목록과 일치하지만 의미목록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 3) 어미변화 체계가 의미목록과 일치하지만 형태소목록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 4) 어미변화 체계가 의미목록이나 형태소 목록과도 일치하지 않지만 어느 한 언어의 어미나 어근이 다른 언어의 어미변화 목록과 일치할 경우.
- 5) 어떤 문법적인 일치도 존재하지 않을 경우.

위에서 열거한 사항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친족관계의 정도를 확증할 수 있다:

- 1) 1의 경우는 2의 경우보다 더 밀접한 친족관계의 정도를 나타낸다.
- 2) 2의 경우는 4의 경우보다 더 밀접한 친족관계의 정도를 나타낸다.
- 3) 4의 경우는 5와 3의 경우에서 문법적인 차원에서는 아무런 일치도 없지만 어휘적인 면에서 친족관계가 성립된다. 이러한 경우 언어간의 친족관계가 입증되면 문법형태소로서도 일치하지 않는 특별한 원인이 명백히 규명되어야 한다.

1의 경우와 같이 두 목록이 일치한다면 그것은 동일한 문법체계를 가진 언어를 의미한다. 또한 어떤 언어체계내에서 서로 상이하지만 부분적인 어근목록의 일치가 입증된다면 이러한 목록은 일반적으로 언어체계의 동일성을 입증하는 내적인 척도로 사용되지만 완벽한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어근형태소의 비교에 의해서 확정된 친족관계의 정도는 문법체계의 비교를 통해서 한층 더 명료해진다. 그러나 문법체계의 비교 그 자체는 완전한 신빙성을 가지지 못하며 다만 어근형태소의 비교에 의한 결과가 분명하지 못할 경우에만 결정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문법적인 대응관계는 해당언어간의 오랜 친족관계와 언어체계의 동일성의 정도를 확증하는 수단이며 또한 어근형태소의 분석에 의한 친족관계의 정도를 한층 더 엄밀하게 규정하는 방법이다.

음운론: 언어의 계통적 분류와 공통조어의 재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음운대응 관계인데 이것을 토대로 음운법칙을 유도해 낼 수 있다. 음운법칙¹⁴⁾은 단어

14) 현재 음운법칙의 기술, 원인 등에 관해서 완벽하게 기술된 어족은 없다. 음운법칙 그 자체는 원래 Pott와 Bopp의 어원연구에서 발견된 부수적 현상인데 역사-비교언어학의 기본과제가 되었다. 음운법칙의 이론도 최근 변형생성문법의 이론발전과 같이 여러 단계의 수정, 보완을 거쳐 정립되었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언어 그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모순성에 있겠지만 연구방법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방법론의 개선에 따라 언어학자들이 언어자료를 한층 더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관찰하여 언어사실과 더욱 접근하는 이론을 세울 수가 있었다. 음성생리학적, 심리적, 자연적, 역사적, 사회적 요인 등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는 물론 형태소에도 적용되며 유사한 단어, 어근, 접사의 목록의 분석, 비교를 통해서 유도된다. 이 경우에 차용어를 제거한 조어에서 전승된 어휘와 이것을 형태론적으로 분석하여 얻은 형태소만이 고찰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어휘나 형태소의 부류와 하위부류의 알파벳순의 배열을 바탕으로 두 비교된 언어간의 친족관계에 있는 언어단위의 표현수단인 음소목록을 추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친족관계에 있는 언어단위의 체계적인 비교를 통해서 당해언어의 음소체계를 재구할 수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비교에서 추출된 결론은 의미를 지닌 두 언어단위에만 제한되지 않고 당해언어의 모든 표현체계 즉 음소체계와 관련된다. 이러한 추론은 예를 들면 어떤 언어에서 단어의 첫음이 유성파열음이면 그것은 다른 언어의 동일한 위치에서 조음장소가 동일한 유성파열음으로 나타난다는 형식을 취한다(ibid. 273). 음운법칙은 이러한 방법으로 유도되며 언제나 논리적으로 “만약... 한다면, ... 하다” (“wenn... so...”)라는 대단히 복잡한 판단형식을 취한다.¹⁵⁾

음운법칙은 내용상으로 1) 음운이나 음운군에 관한 정보, 2) 단어, 형태소 또는 음절내에서 이러한 음운이나 음운군의 위치에 관한 정보, 3) 당해음운이나 음운군이 나타나는 어느 한 언어나 여러 언어에 관한 정보(ibid. 273) 등을 제공한다.¹⁶⁾

친족어에서 어원상으로 관련이 있는 동계어휘의 어근과 접사의 음운형태를 분석해 보면 이것들이 모두 특정의 음운법칙의 적용결과로 공통조어에서 파생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 어원론에서 어근이나 접사의 음운형태가 규칙적인 발전, 차용 또는 예외현상의 결과인지는 당해어휘 의미의 변천사를 설명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예컨대 음운법칙은 모든 어근의 정확한 분류를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의미의 변천사를 파악하기 위한 형식적 기준이 된다.

음운법칙이 문법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중요하다. 접사와 어근의 형식적 변화는 일련의 문법현상의 변화를 야기시키는데 특히 다음 사항은 형태론체계의 변화에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ibid. 275):

1) 음소 또는 음소군은 강조되지 않은 위치에서 음운법칙에 따라 소멸될 수 있다. 어느 한 단어의 접사가 소멸되었다면 당해언어의 형태론체계에 변화가 일어난다.

2) 접사를 형성하는 음소 또는 음소군은 음운법칙에 따라 그 음운형태가 변화되어 특정의 접사는 통합되든지 이와 반대로 형식상으로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그 결과 당해언어

거의 모든 요인을 토대로 음운변화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노력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는 얻지 못했고 결국 언어에 고유한 법칙이라는 막연한 결론에 이르고 말았다.

15) 따라서 음운법칙은 논리적으로 존재양화사(“es gibt...”)로 간주되는 음운대응과 구분된다.

16) 이에 반해서 공통조어에서 파생되지 않은 유사한 형태의 어근이나 접사의 음운형태는 예외현상에 속하거나 차용된 것이다.

의 형태체계에 변화가 일어난다.

3) 음소는 음운법칙에 따라 단어내에서 형태소나 음질의 위치를 전환시키는데 이러한 구조적 변화나 단순화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형태론체계의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문법형태는 음운법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음운법칙은 형태론체계 변화의 시기를 추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위에서 논한 사항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른다:

음운법칙의 도움으로 비교되는 두 언어 또는 다수의 언어에 관한 음운체계를 기술할 수 있는데 음운법칙에 관한 기술은 예외현상 때문에 대단히 복잡한 양상을 띤다. 음운법칙은 어원의 체계적 분류를 가능하게 하는 형식적 기준인 동시에 또한 의미변화의 형식적 한계를 제시한다. 어근이나 접사의 형식적 변화가 일련의 문법적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음운변화는 문법적인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예컨대 음운법칙은 형태체계 변화의 시점을 확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음운법칙은 현재 언어간의 친족관계 규명에 관한 최상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기 때문에 역사-비교언어학의 분석과 기술방법을 평가하는 형식적 척도로 사용되는 방법론적 마지막 단계로서 역사-비교언어학 방법론의 절정을 이룬다.¹⁷⁾

지금까지 논술한 역사-비교언어학의 방법론상의 발전단계를 1) 어원론 → 2) 어휘적 대응 → 3) 어근과 접사의 대응 → 4) 문법체계의 대응 → 5) 음운대응 → 6) 음운법칙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역사-비교언어학은 언어내적 요인에 의해서 분기된 언어들간의 친족관계 정도를 규명하고 공통조어의 재구를 가능하게 하는 대단히 복잡한 언어이론임에 틀림없다. 비교방법은 수형계통설과 더불어 원칙적으로 언어의 계통적 분류의 토대가 된다.

음운법칙은 Rask(1818)에 의해서 처음으로 발견되었고 Grimm(1822)에 의해서 공식화되었다. Grimm에 의하면 언어형태가 동일하다는 것은 언어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야기되는 규칙적인 차이점을 내포해야 하므로 형태상으로 일치한다고 해서 동일한 어형으로 볼 수 없다. Schlegel은 음성적으로 완전히 일치하는 어휘만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했고 Rask는 어휘가 서로 다르더라도 그 차이가 일정한 대응관계에 있다면 그것을 동일한 것으로 보았는데 Grimm은 어휘가 오직 일정하게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어휘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경험상으로 입증된 언어변화의 규칙성이 자연과학의 법칙과 동일한 기계적인 법칙으로 인식되었다.

17) 언어비교의 이론으로서 음운법칙은 이것을 실제로 언어비교에 적용했을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경험과학으로서 언어학의 연구대상인 언어에 관한 모든 경험적인 연구가 완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